



학용품 이야기



나는 은정이 필통이에요. 은정이는 나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겠지요? 나는 지금 은정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나는 윤수 지우개예요. 윤수는 심한 장난꾸 러기예요. 나를 함부로 다루고, 내 몸에 낙서 도 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생긴 모 습이 되었어요. 윤수가 나를 찾아서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혜정이 연필이에요. 혜정이는 공부할 때에 나를 입에 무는 버릇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무척 아팠어요. 혜정이는 모르고 그랬겠지만 나는 괴로웠어요.



나는 영민이 크레파스예요. 영민이가 책상 옆에 떨어진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 버렸어요. 영민이는 작아진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요.









나는 철진이 공책이에요. 철진이는 공책에 이름을 쓰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어제 선생님께서 나를 들어 보이며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철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름을 써 놓았더라면 나를 알아봤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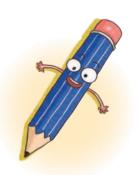


나는 광식이 풀이에요. 광식이는 나를 함부로 대해요. 아무 데나 나를 문질러요. 또 뚜껑을 덮어 주지 않아서 몸이 딱딱해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슬펐어요. 광식이는 내 마음을 알고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말을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파요! 은정이 네 반 선생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은정이네 반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1 「학용품 이야기」를 읽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1 은정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2 공책이 철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2 학용품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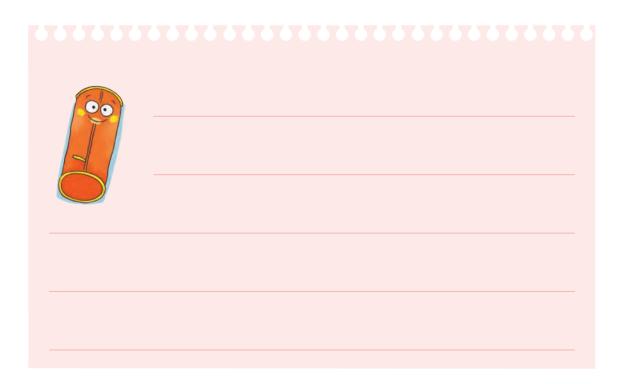




3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 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버릇 낙서 함부로

- 장난감을 다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벽에 를 하면 안 됩니다.
- 어른에게 없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 4 필통이 은정이네 반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지 써 봅시다.



5 「급한 마음에」를 읽고 원태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봅시다.

급한 마음에

원태는 오늘 아침 늦잠을 자서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늦을까 봐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 니다. 원태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지자마자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마터면 반대편에서 신 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에 치일 뻔하였습니 다. 다행히 차는 '끼이익' 소리를 내며 멈추었습 니다. 원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배움 다지기

-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나요?
-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현했나요?







